

대원 어드바이저리 장기인턴 채용

중동 산유국 및 아시아 국가의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영기업 대상 HR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하는 Daewon Advisory에서는 6개월 이상 함께 일할 장기인턴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글로벌 마케팅 / 행사기획 및 운영 / 교육 콘텐츠 개발

○ 지원요건

-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 영어 또는 중국어로 업무수행 가능한 자 (해외 client와 영어로 업무수행 가능자)
- 지방 및 해외 출장 가능자 (싱가폴, 중국, UAE, 쿠웨이트 등)

○ 대우 및 복지

- 급여: 월160만원
- * 혜택: 4대보험 지급, 우수 근무자는 Top Intern Award 및 부상 수여

○ 서류접수 및 채용절차

- 제출서류:
 -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국문/영문 각 1부)
 - 2) 학부 성적증명서 1부
 - 3) 공인 영어성적 증명서 1부,
 - 4) 사전질의응답서(아래 질문 참조)
- 제출기한: 채용시 마감
- 접수처: 이메일 접수 (recruit@daewonadvisory.com)

○ 사전 질의내용

- Daewon Advisory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본인의 업무상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 Daewon Advisory에서 함께 일하게 된다면 본인의 각오와 커리어 목표를 기술해주세요.

○ 문의 및 상담

- 대표전화: 02-798-7208
- 홈페이지: www.daewonadvisory.com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14 이태원힐스 빌딩 3층 (한남동)

(참고) Daewon Advisory 언론보도 자료



연합뉴스

한국의 중소기업, 중동서 하버드대 눌렀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5.06.01, 17:55

대원 어드바이저리, 하버드를 제치고 '쿠웨이트 차세대 리더양성 프로젝트' 수주

한국의 중소기업, 대원 어드바이저리(중동전문 컨설팅회사)가 하버드대학 등 전 세계 유수 기관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KNPC) 차세대 리더 양성과정 입찰(수주금액: 58만 달러)에 최종 선정됐다. 대원 어드바이저리(대표: 이현주)는 지난 5월 31일 쿠웨이트에서 KNPC와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쿠웨이트 KNPC는 총 6천여 명의 직원 중 차세대 리더로 60여 명의 고성과 부서장들을 선정해 최고의 리더십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쿠웨이트는 GDP의 90% 이상을 오일머니가 차지할 정도로 석유산업 주도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최고의 인재들이 석유공사에 몰려 있다. 이들 가운데 최고 리더로서의 자질이 검증된 중간 간부들이 대원 어드바이저리에서 '한국식 리더

쉽' 교육을 받게 되며, 본국으로 돌아가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능력도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이번 입찰에는 하버드대학, 스위스 IMD, 런던정경대학 등 세계적인 경영대학들이 참여했으나, 쿠웨이트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앞세운 대원 어드바이저리를 누르지 못했다.

대원 어드바이저리 이현주 대표는 "중동에서 한국 산업육성의 실제경험 벤치마킹에 높은 관심을 보여서 하버드 대학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며 "제2의 중동붐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원 어드바이저리는 지난 2011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의 주요 산유국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식 리더양성' 과정을 진행해 왔고, 중동 지역의 고위층 사이에서 입 소문이 퍼져 해를 거듭할수록 연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거쳐 간 연수생은 700여 명이 넘는다. 이들 모두가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식 리더쉽'의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핵심적인 정책 제안들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아부다비 내각의 고위공직자 연수 담당자는 "작년 10월에 대원의 연수를 다녀온 아부다비 현직 차관보들의 설문결과 '참석자 100%가 이 과정을 다른 동료에게 추천한다'고 답해, 영미계 명문대 과정의 만족도 보다 월등히 높이 놀랍다"고 전했다.

대원 어드바이저리는 20~30대 청년들이 회사의 주류이며, 한국 청년들의 톡톡 튀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중동에 특화해서 중동에서 영미계의 아성을 뚫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번 수주를 계기로 '한국식 리더쉽' 교육을 받은 쿠웨이트 인재들과 한국기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기업들의 쿠웨이트 프로젝트 수주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NPC는 1960년에 설립된 쿠웨이트 국영 정유회사로서 3개의 정유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95만 배럴가량의 각종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KNPC는 금년에 총 30억 달러 수준의 LNG 수입터미널, 20억 달러 수준의 NRP 본플랜트 저장시설 공사 입찰을 진행 중이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입찰에 초대된 상태다.